

농협 전남본부 “농기계 임대·작업 대행 도와드려요”

‘농기계 은행’ 농기계 4265대 전년비 171대 ↑ ...울 29만6800ha 대행 전남 작업 대행료 평균 밀돌아...고령화·일손 부족 대응 생산 효율 효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인력도 부족해지면서 농업 고령화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은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기계 은행’ 사업을 운영하며 농기계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있다.

17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협들이 보유한 농기계는 4265대로, 전년보다 171대 증가했다. 전남농협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0억원 상당 규모 농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현재 트랙터 2006대, 승용 이앙기 237대, 콤바인 169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기계 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 농기계는 4269대이다. 3477대는 농기계 은행 ‘책임 운영자’에게 빌려줬고, 782대는 직접 임대했다.

‘농기계 은행’이란 농협이 농기계를 구매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책임 운영자로 지정, 이들에게 농기계를 빌려주거나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농기계를 빌려주는 단순 임대사업과 달리 농작업 대행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책임 운영자는 공급가 500만원 이상 농기계를 5~10년 장기임대하며 매년 농기계값을 나눠서 내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다.

농협이 지정한 경지에 대해 농작업을 대신해 주고 위탁 농가로부터 작업료를 받아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책임 운영자는 농기계 초기 구매비용과 이자 부담 없이 농기계를 공급받을 수 있고, 위탁 농가는 경운·정지(땅 고르기)·이앙·수확 외에도 ‘직파재배’와 ‘무인헬기 방제작업’ 등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큰 농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지역 농협들이 농기계 은행 사업을 통해 올해 농작업 대행을 완료한 면적은 22만553ha, 밭 7만6243ha 등 29만6796ha이다.

이는 전국 농협 농작업 대행 완료 실적(94만8018ha)의 31.3%에 달하는 면적이다.

벼농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남지역 농협 평균 작업 대행료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농협 평균 경운 농기계 작업료는 3.3㎡(평)당 123원으로, 9개 도(道) 평균 128원을 밀돌았다.

정지 작업 대행료는 133원으로, 제주를 제외한 8개 도 평균 134원보다 낮았다.

이외 이앙 132원(평균 138원), 수확 170원(평균 177원) 등 전국 평균 대행료를 밀돌았다.

안승기 농협 전남본부 양곡자재단 차장은 “농촌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농협 농기계 은행은 힘들고 어려운 농작업을 대신해 주고 민간보다 작업료가 저렴한 덕분에 인기를 끌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식량 고물가와 공급 위기 속에서 농업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1 농업기계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 농기계 보유량은 총 28만5482대로, 전년보다 1.6%(4506대) 증가했다.

지난해 농기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시·도는 경북으로, 전남의 1.5배 수준인 44만1391대를 지니고 있었다.

전남은 전년 28만976대보다 4506대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농기계는 동력 경운기로, 전년보다 0.3%(246개) 많은 8만554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년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농기계는 다양한 작업을 부착할 수 있는 관리기로, 전년보다 1330대(2.9%) 늘어난 4만7513대로 집계됐다.

이외 농용 트랙터(4만4670대), 농산물 건조기(4만2350대), 동력 이앙기(2만3901대), 곡물 건조기(2만951대), 콤바인(1만2015대), 스피드 스프레이어(방제기·5139대), 파종기(2063대) 등 순으로 전남에 많았다.

전남 농업용 멀티콥터는 336대에서 지난해 465대로, 38.4%(129대)나 증가했다.

광주 농기계 보유량은 2020년 8394대에서 지난해 8545대로, 1.8%(151대)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북광주농협, 여성대학 수료식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가운데)은 지난 15일 북구 본촌동 본점에서 ‘5기 여성대학 수료식’을 열고 2개월 교육과정을 받은 80여 명과 수료를 축하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여름 휴가철 낚지·꽃게·활참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실시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도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 유통업체 13만 곳 등이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14만 곳은 유통 이력 점검을 받는다.

원산지 표시 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밴장어·미꾸라지·주꾸미·낙지·꽃게와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활가리비 등 횡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활참돔·활가리비와 여름철 유통 신고량이 많은 냉동 꽃게·냉동 공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그동안 수산물 생산자 등의 원산지 표시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인 감시 덕분에 수산물 유통 시장에서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 유통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수입 소고기 무관세 적용...이마트 최대 8% 인하

미국·호주산 일부 품목 선제 적용 21~27일 구이류 최대 40% 할인도

이마트는 정부의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입 소고기 판매가를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마트는 오는 20일 미국과 호주산 수입 소고기 10만t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 시행을 앞두고 18일부터 미국·호주산 소고기 10여개 품목의 판매가를 5~8% 인하한다.

호주산 척아이를 5% 인하한다.

이마트는 이들 10여 개 품목 외에도 할당관세 적용 시작 이후 순차적으로 전체 미국·호주산 수입 소고기의 판매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또 정부의 10만t 할당관세 적용 물량 소진 시

점을 고려해 당분간 인하된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21~27일 미국·호주산 구이류 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한다.

정부는 앞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주로 소비하는 미국·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인 10만t은 올해 남은 기간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 정도 규모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자원공사, 광양 수어댐 주민과 ‘한마음 축제’

광양 수어댐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는 최근 댐 주변 지역 주민 500여 명을 초청해 ‘주민 한마음 축제’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양시 진상면 백학동 권역운영위원회와 함께 주최했다.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는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모처럼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며 주민 농가를 돕고 ‘뽕배’ ‘낙지’ 등 공연도 진행했다.

유재일 여수권지사 지사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

기 완화 방침에 따라 모처럼 수어댐 주변 지역 주민들과 수자원공사 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댐 주변 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장흥댐과 주암댐 등 전국 27개 댐 주변 주민들과 화합하는 행사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는 장흥댐 주변 지역 주민 200여 명과 화합행사를 벌였다. 주암댐 등에서는 스마트헬스기구 체험, 영양 상담, 치매 예방 검사 등 주민 수요에 맞춰 건강한 일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1522-9341